

경기도극단 2025년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
(2024년 제4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버닝 : 타오르는 삶 >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공연개요

- 공연명 :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 (제4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 공연일자 : 6.30(월) 19:30 <버닝:타오르는 삶> (대상)
7.01(화) 19:30 <세 개의 화령전 작약> (우수상)
- 공연장소 :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관람연령 : 초등학생(8세) 이상(2018년 포함 이전 출생자)
- 러닝타임 : 60~75분 내외 (각 작품별 다름)
- 제작/출연 : 경기도극단
- 단체 · 공연문의 : 031-230-3304~5 (경기도극단)

■ 공연소개

현재와 과거, 사람과 관계에 대한 사유와 담론
2024년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공모 - 당선작
대상 < 버닝 : 타오르는 삶 > / 우수상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작가적 상상력과 희곡 본연의 즐거움
2025년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낭독극” 으로 희곡과 배우, 관객과의 첫 만남

▶ 시놉시스

- 대상 수상작 < 버닝:타오르는 삶 > (작가 조은주 / 연출 박혜선) - 6.30(월) 19:30 공연

학교 교육의 필수인력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안정 속에 방관된 급식조리사

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급식조리사 정혜, 해숙, 지연은 급식조리사 처우 개선 시위 현장에서 만나 우연찮게 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식재료 밀착업무부터 배식준비까지 단 3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정신없고 고된 일이지만 베테랑 조리사인 그들은 함께 손발을 맞추는 일이 즐겁다. 하지만 그들이 일을 사랑해도 일은 그들을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를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다. 다시 사랑하는 일터로 함께 돌아가기 위해.

작의(作意)

급식조리사들은 학교 교육의 필수 인력입니다. 교육청 소속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이들은 매일 위험한 도구와 육중한 식기를 다루다 부상을 당하거나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셔 폐암에 걸려도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만날 일이 없어 존재가 잊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이 작품은 태어났습니다.

- 우수상 수상작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작가 황수아 / 연출 신재훈) - 7.1(화) 19:30 공연


나혜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극중극으로 그녀의 그림 화령전 작약에 얽힌 미스터리를 밝혀나가는 사건
 대학 강사이자 연극 연출가인 기형은 연극 <불꽃의 여자 나혜석> 대본을 쓰다가 나혜석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나혜석이 대학 친구 사토우에게 보냈던 편지 하나를 입수하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는, 그림 <화령전 작약>이 두 개 더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 이를 한국 신문 문화부 기자 수영에게 제보한다.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의 행방을 추적할수록 나혜석에 대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연극 <불꽃의 여자 나혜석>도 완성되기에 이른다.

작의(作意)

한때 촉망받는 예술가였고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혼을 한 뒤 근거 없는 소문과 마녀사냥에 고통받았던 나혜석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관습을 강요받는 현대 여성의 모습이나 유명인에게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하지만 일말의 사회적 면역력이나 행정적, 사법적 보호조차 없던 백 년 전의 그 삶이 지금보다도 얼마나 무기력했을지 상상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림 <화령전 작약> 속에서 자신을 활짝 드러내고 있는 작약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쩌면 그 모습이 그녀가 삶을 통해 전달하고 싶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작가 소개

- < 버닝:타오르는 삶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공모(대상) -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 -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p>주요작품 <H> ,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맘> 외 다수</p>
--	---

작가 조은주

-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우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희곡공모(우수상) -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 아르코 공연 예술 창작산실 대본 공모 당선 -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 - 밀양 희곡상 외 다수 수상 <p>주요작품 <가로묘지 주식회사>, <마지막 포에티카>, <실종법칙> 외 다수</p>
---	--


작가 황수아

■ 연출 소개

- < 버닝:타오르는 삶 >

 <p>연출 박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회 월드2인극 페스티벌 우수작품상 [친절한 고르스키씨] - 2013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 제45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억울한 여자] - 월간<한국연극> 선정 '2008 공연 베스트7' [억울한 여자] <p>주요 작품활동</p> <p><다이빙 보드> <이단자들> <퇴직면접> <친절한 고르스키씨> <우쿠리 낮:녀노소> <백년의 비밀> <타바스코>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 나라> <자기 앞의 생> <어떤 접경지역에서는> <신의 아그네스> <리얼 게임> <피카소 훔치기> <음악극 에리 사티> <억울한 여자> 등 연출</p>
<p>작품에 대하여</p> <p>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행복 추구는 산업혁명 이후 현재진행형인 화두다. 지난 4월에도 급식노동자의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요구되었고, 며칠 전에도 대기업 제빵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현장이 보도되기도 했다. 산업재해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사이에 거의 매일 발생되고, 신선한 노동의 대가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들로 무참히 무시되고 있다.</p> <p><버닝: 타오르는 삶>은 조은주 작가가 현장 급식노동자를 직접 인터뷰해서 쓴 희곡으로 그들의 고단한 일상과 정성스런 밥 한 그릇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누구나 밥을 먹고, 누구나 노동을 한다.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 일들이 모두에게 행복과 자긍심을 주는 일이 되길 바란다.</p>	

- < 세 개의 화령전 작약 >

 <p>연출 신재훈</p>	<p>주요 작품활동</p> <p>작·연출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정서진별곡> <시간의 난극> <비극을 찾는 무대> 등 다수</p> <p>연출 <견고덕걸>, <금조 이야기>, <틴에이지 덕> 등 다수</p>
<p>작품에 대하여</p> <p>실존 인물의 안간힘이 시간을 통과해 동시대 작가의 시선과 만납니다. 극중극 형식을 통해 배우는 인물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변화는 무대를 넘어 관객에게로 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혜석이 작약을 그린 것처럼 아주 잠시 연극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감각해 봅니다.</p>	